

내고장 일꾼



송귀근 고홍군수는 16일 오전 10시 팔영체육관에서 열리는 제19회 농촌사랑 한마음 체육대회에 참석한다.



김선호 곡성부군수는 16일 오후 2시 소동마루에서 열리는 일자리정책로드맵 이행상황 보고회에 참석한다.



최정희 구례부군수는 16일 오전 9시 부군수실에서 열리는 제8회 조례·규칙심의회의에 참석한다.

보성 제58회 전남제천 상징물 공모

보성군은 내년 4월에 열리는 제58회 전남도 체육대회의 상징물 공모를 실시한다.

15일 군에 따르면 이번 상징물 공모는 엠블럼과 마스크트, 포스터, 구호, 표어 등 5개 부문 대상으로 추진된다.

공모 심사 기준은 ▲보성의 전통과 역사·문화비전 이미지 함축적 표현 ▲'녹차수도 보성'의 이미지 내포 ▲전남도민 화합과 참여 상징 ▲전남도 상징물과 개최지 보성군의 상징물의 연계성이 있는지를 본다.

전남제천 조직위원회는 상징물 선정 위원회 심사를 거쳐 10월 중 당선작 발표한다.

분야별로는 최우수작과 가작을 부문별 2개씩 총 10점 선정한다. 조직위는 확정된 상징물을 활용해 본격적인 대회 홍보에 나설 예정이다.

응모는 대한민국 국민이면 누구나 가능하며 오는 9월 21일까지 직접 방문, 우편 접수 또는 이메일로 할 수 있다. 자세한 내용은 보성군청 홈페이지 공지사항에서 확인 가능하다.

/보성=선상희 기자

구독신청 및 기사제보

- 본사 010-4601-5323
- 여수 010-8648-1236
- 광양 010-3622-9898
- 순천 010-2547-7890
- 구례 010-5431-4006
- 곡성 010-6764-6100
- 고흥 010-9151-2828
- 보성 010-4633-1790

청년 창업 메카 여수 '꿈뜨락몰' 인기몰이

29개 점포 개점 한달여 만에 2억원 매출 1만 6천명 방문... 중앙시장 활성화 기여

여수시가 중앙시장 2층에 문을 연 '꿈뜨락몰'이 19일간의 영업기간 동안 2억원에 가까운 매출을 올려 청년 창업 활성화를 향한 연착륙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15일 시에 따르면 꿈뜨락몰 영업 시작일인 지난달 12일부터 31일까지 19일간 29개 청년 점포의 매출액은 1억 9,324만 원으로 집계됐다.

29개 점포 중 먹거리·카페 업종(19개) 매출액이 8,434만 원, 판매·

서비스 업종(10개)이 1억890만 원이었다. 전체 방문객은 1만 6,000여명으로 점포 당 일일평균 방문객은 29명, 일일평균 매출액은 35만 710원으로 파악됐다.

꿈뜨락몰은 여수 첫 청년몰로 지난달 12일 중앙시장 2층에 문을 열었다. 중앙시장 2층은 지역 청년 29명이 운영하는 개성 있는 점포로 변신했다.

청년몰 조성은 시가 지난해 중소벤처기업부의 청년몰 조성사업 공모에 선정되면서 본격화됐다.

국비 7억 5,000만 원과 지방비 6억 원, 자부담 1억 5,000만 원 등 사업비 15억 원을 시설개선과 청년상인 양성 등에 투입했다.

최종 입점 상인들은 8주간의 창업교육과 현장실습 등을 거쳐 선정됐다. 청년몰 명칭인 꿈뜨락몰은 빈터의 의미를 가진 '뜨락'에서 '꿈'을 만들어간다는 의미다.

꿈뜨락몰 명칭처럼 청년들은 상점운영과 함께 무대공간에서 공연을 하는 등 청년몰을 청년 문화공간으로 만들어가고 있다.

여수시 관계자는 "꿈뜨락몰은 단순



여수 중앙시장에 위치한 꿈뜨락몰이 개장 한 달만에 2억원의 매출을 올리며 청년 창업 활성화에 기여하고 있다. 사진은 꿈뜨락몰 내부 전경

히 청년들이 운영하는 점포가 있는 곳이고 우수청년창업 사례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여수=곽재영 기자



고흥군은 최근 군청 중앙홀에서 미래 스마트팜 추진단 발대식을 가졌다.

고흥 미래농업 연구단지 조성한다

스마트팜 추진단 발대... 고흥만에 30ha 규모 계획

고흥군은 최근 군청 중앙홀에서 지식기반형 미래농업 기술혁신 연구단지 조성을 위한 미래 스마트팜 추진단 발대식을 개최했다.

15일 군에 따르면 이번 발대식은 김기홍 부군수, 성지남 순천대 생명산업과 학장 등 비롯해 전남 테크노파크, 전남 생물산업진흥원, 전남 정보문화산업진흥원, 영농법인 등 여러 분야 전문가 20명이 참석했다.

스마트팜 사업은 농업에 정보통신 기술(ICT)을 접목해 만든 지능화 농장으로, 사물 인터넷 기술을 이용해

농작물 재배한다. 시설의 온도·습도·햇빛·이산화탄소 등을 최적상태로 관리해 농업 생산 효율 증가와 품질 향상으로 농업의 고부가가치를 창출하는 사업이다.

추진단은 순천대학교와 협력해 고흥만에 30ha, 400억원 규모로 지식기반형 미래농업 기술혁신 연구단지를 조성한다는 계획이다.

이 단지는 영농법인인과 대학·기업·연구소 등이 연계한 기술혁신 집적단지로 농업생산, 농기계, 농자재, 정보통신, 에너지, 교육 등 후방 산업과

연 실증연구, 빅데이터 분석, 전시·체험, 신품목을 발굴해 농업의 경쟁력 제고와 청년 유입을 촉진한다는 방침이다.

또 관련 사업들이 동반 성장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해 4차 산업혁명 시대의 융복합 산업을 발전시켜 스마트 농업, 스마트 농기자재, 스마트 축산, 스마트 노지 채소 등 전국의 미래 스마트팜 모델을 제시할 계획이다.

고흥군 관계자는 "지식기반형 미래농업 기술혁신 연구단지를 조성해 농민들의 생산 소득 증대와 품질 향상 나아가 청년이 돌아올 수 있는 고흥을 만들도록 힘쓰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고흥=진준영 기자

남해고속도로 순천만나들목 통행료 징수 폐지 건의안 채택

오광목 순천시의회 대표 발의

순천시의회(의장 서정진)가 최근 남해고속도로 순천만나들목의 통행료 징수 폐지를 요구하는 건의안을 채택했다고 15일 밝혔다.

시의회는 최근 제225회 임시회 2차 본회의를 열어 오광목 의원이 대표발의한 '남해고속도로 순천만IC 통행료 폐지 촉구 건의안'을 가결했다.

건의안은 국토교통부와 한국고속도로공사 등에 전달할 예정이다.

오 의원은 제안 설명에서 "순천만나들목에서 신대나들목 구간은 순천시 인월동과 해룡면 신대지구를 오가는 차량은 물론, 여수시와 광양시, 광양만권경제자유구의 물류차량이 주로 이용하는 도로"라며 "통행료 부과로 인해 이곳을 이용하는 차량들이 도심 지역을 통과하는 탓에 곳곳에서 상시 교통 혼잡 문제가 발생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 구간의 통행료를 폐지는 시민들의 불필요한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도심 교통량 분산 효과를 통한 이동시간 단축, 대기환경 개선, 연료 낭비 등을 줄이는 유무형의 긍정적 효과를 거둘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성남시 판교나들목, 고양시 서울외곽순환도로의 사례처럼 시내 구간의 통행료 폐지는 비단순천 시민들의 억지 주장은 아니다"며 "국민의 세금으로 건설된 도로를 본래의 목적에 부합하도록 도로를 이용하는 다수 국민들의 합리적인 의견을 적극 수용해 운영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시에 따르면 현재 한국도로공사는 순천나들목-해룡나들목간 3.4km 구간에서 통행료 900원을 징수하고 있다. 이 구간의 1일 통행량은 5,000대, 연간 통행료수입은 16억여원에 달한다.

하지만 통행료 징수로 인해 차량들이 이곳을 기피하며 발생하는 연료비와 가계부담, 이산화탄소 배출량 등 사회비용은 이보다 최소 5-6배 많다는 것이 순천시의 분석이다.

그동안 한국도로공사와 관련 기관 등은 타 시·도의 사례와 형평성 등을 이유로 순천만나들목의 통행료 폐지에 난색을 표해왔다. /순천=박경식 기자

광양 서천변 '9월 걷고 싶은 길' 선정

광양시는 전남을 대표하는 테마별 관광지인 광양읍 서천변 코스모스길에 '9월의 걷고 싶은 길'에 선정됐다고 15일 밝혔다.

시에 따르면 전남도에서는 '전라도 정도 1,000년'을 맞아 2018년을 전라도 방문의 해로 지정하고 테마별 관광지를 매달 선정하고 있다.

이번에 선정된 광양 서천변은 넓은 잔디밭과 동·서천 둘레길을 따라 코스모스와 개나리, 꽃무릇, 백일홍, 금계국 등 계절별로 다양한 꽃길이 조성되어 시민들의 발길이 이어지고 있다.

특히 광양숯불구이축제가 개최되는 9월과 10월에는 가을의 전령사인 코스모스가 서천의 맑은 물과 돌 징검다리, 물레방아, 원두막이 잘 어우러져 추억과 낭만적인 정취를 느낄 수 있다.

또 광양의 대표 먹거리인 광양불고기도 맛볼 수 있어 관광객들에게 좋은 볼거리뿐만 아니라 먹거리도 제공하

고 있다. 정흥기 광양읍장은 "올 가을에는 광양읍 서천변 코스모스길에서 가을의 정취를 느껴보며 새롭게 단장한 불고기테마거리에서 광양숯불구이의 맛도 즐겨보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광양=정경화 기자

클릭! 고흥 소식



광양 노인일자리사업 직무교육

광양시 광양읍은 최근 읍사무소 대회의실에서 노인일자리와 사회활동지원사업에 참여하는 어르신 110명을 대상으로 직무 및 건강관리 교육을 실시했다고 15일 밝혔다.

이번 교육은 근린생활지원·주차단속 등 공익형 일자리 참여자 중심으로 폭염 대비 활동 시 유의사항과 노년기 건강관리 관련 사항들을 안내했다.

/광양=정경화 기자



담양 '도담도담 사랑방' 공예 체험

담양군 장평면은 최근 문화의 집에서 다문화 가정과 장애가정이 함께 어울리는 복지공동체 '도담도담 사랑방' 공예체험 행사를 진행했다.

장평면 문화의집에서 개최된 이번 공예체험은 냇킨아트 생활 공예 교실을 개설하고 생활용품 접시를 직접 만들어 보는 체험을 통해 자신만의 작품을 서로에게 보이며 마음속 이야기를 터놓는 시간을 보냈다.

/담양=장동원 기자



보성 생애주기별 안전 교육

보성군은 최근 모든 군민을 대상으로 '생애주기별 찾아가는 안전 교육'을 실시했다.

안전 교육 프로그램은 분야별 전문 강사를 초빙해 어린이집과 유치원, 학교, 경로당, 마을회관 등 237개소에서 연령별 맞춤형으로 진행하고 있다.

또 재난안전 인프라를 구축하고 지역민의 안전의식을 향상시켜 사전 대처 능력을 배양할 수 있도록 구성됐다.

/보성=선상희 기자



여수 여서동 '썸머 락페스티벌' 홍보

여수시 여서동은 오는 18일 여문문화의 거리에서 열리는 '썸머 락페스티벌' 홍보에 앞장섰다고 15일 밝혔다.

여서동에 따르면 여문문화의거리활성화 추진위원회와 주민센터 공무원 등 20여 명은 여문문화의 거리에서 홍보활동을 펼쳤다.

참여자들은 시민들과 상인들에게 홍보물을 나눠주며 행사 관심도를 높였다.

/여수=곽재영 기자